

‘함께 심는 행복 씨앗’ 종교화합으로 꽃피다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대중문화축제로 거듭나다

불교가톨릭 등 종교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주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가 지난 19일 충청북도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농원에서 개최됐다. ‘생명, 함께 심는 행복의 씨앗’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자연과 생명의 조화를 강조하는 유기농 산업엑스포와 어우러져 풍성함을 더했다.

축제를 기념하는 ‘생명콘서트’ 시작에 앞서 각 종단 지도자들은 쌀, 보리, 콩, 조, 기장 등 유기농 곡식을 상자에 부어 축제 슬로건인 ‘생명, 함께 심는 행복’ 글자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하늘과 땅,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고 화합을 이루는 유기농 산업의 정신은 상생을 통해 평화와 행복을 이루려는 종교인들의 공동체적 가치관과 인류애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늘 이 축제를 통해 종교가 주는 평온과 안식을 함께하길 바라며 지역사회와의 든든한 연대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 화합의 축제가 괴산에서 열리게 돼 반갑다”며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총복을 찾아 종교인과 비종교인, 아울러 지역민들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날 종교 지도자들은 엑스포농원 방문에 앞서 근거리에서 위치한 입석마을 사과농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도자들은 사과 따기 체험을 한 뒤 마을 농업인들과 오찬을 가지며 농약, 유기농 생산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환을 듣고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엑스포농원에 마련된 ‘종교문화축제의 장’에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유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가 종단별 특색을 살린 공연 프로그램 ‘종교문화마당’을 비롯해 ‘화합의 장’ ‘행복의 장’ 등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종교 문화의 다채로움을 알렸다.

행사에는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장, 남궁성 원불교 교정위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아운경 유교 성균관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선묵해자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 산사순례기도회’ 회원 1500여명도 엑스포장을 찾아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종교문화축제는 종교간 화합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진행됐으나 올해 처음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열리게 되면서 일반 시민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중문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괴산=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제19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가 지난 19일 충북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농원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종교지도자들이 축제 슬로건인 ‘생명, 함께 심는 행복’을 유기농 곡식을 부어 완성하는 퍼포먼스.

“선학원 설립주체는 조계종단”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탈종선언’ 정관 원상회복 촉구
선학원정상화 결의문 채택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학원의 설립 주체는 조계종단”이라며 선학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우송스님)는 지난 22일 덕숭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제4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 우송스님, 부회장 현조스님을 비롯해 원명·성월·정법·월경·정묵·홍선·덕문·향적·수불·호성·성우·무상·월우·경우스님 등 16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본사 주지 스님들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스님으로부터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결의문을 통해 “선학원 이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하여’와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선학원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지난 22일 덕숭림 수덕사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 주지 협의 제41차 회의.

가 아닌 일반인마저도 임원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탈종을 선언한 것”이라고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으로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을 추대했다. 정념스님은 “역대 회장 스님들이 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위상을 높여 잘 이끌어 왔다”며 “뜻을 잘 계승해서 협의회가 종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스님이 선학원 대응 관련 교구연합 호법단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와 중앙·교구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총본산 성역화 불사위원회 모연의 밤 개최 관련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또 중앙총회 재정분과위원장 주경스님이 사찰 토지처분금을 종단 목적사업 및 교구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 마련에 대해 본사 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에 대해 본사 주지 스님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42차 회의는 오는 11월16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이시영 충청지사장 lsy@ibulgyo.com

법인 종단등록 70% 돌파

9월 현재 230여 곳 중 165곳 등록

삼보장재의 유실을 막고 법인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종단에서 법인과 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 현재 종단에 등록된 법인이 165곳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7일 열린 총무원회의에서 24건의 법인 등록을 승인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법인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사찰보유법인 8곳, 사찰법인 5곳, 종단법인 6곳, 사찰출연법인 29곳, 사찰공동출연법인 2곳, 승려법인 115곳 등 총 165곳의 법인이 등록됐다. 이는 등록 대상 230여 곳 가운데 약 71.73%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 3월 종단이 발표한 법인등록 현황 111곳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3월 집계된 법인등록 현황은 각각 사찰보유법인 8곳, 사찰법인 1곳, 사찰출연법인 28곳, 사찰공동출연법인 1곳, 승려법인 64곳, 종단법인 6곳 등이었다. 이번 집계된 법인등록 현황을 보면 특히 승려법인의 종단 등록이 두드러졌다. 법인관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단 등록대상 법인 여부를 인식하지 못해 미등록 법인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승려법인이 종단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종단은 지속적으로 법인등록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왔다.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원칙대로 법인관리법에 따른 권리제한은 엄격하게 실시하면 서도 미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종단등록을 적극 유도해왔다. 법인관리법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종단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도들의 피해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앞으로도 종단은 법인 등록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동시에 등록대상 법인에 대한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종단 미등록법인의 경우 임직원과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도제들은 법인관리법에 명시된 7가지 사항에 대한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종단에서 지원하는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총무직, 교육 및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법과 증명서 발급, 종단명칭 사용 등도 불허된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만공스님 독립자금 〈1면에 이어〉

이석 총재는 “3·1운동이 끝나고 손병희 선생이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다가 비참하게 작고하면서 의친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항일전쟁의 새로운 대안은 바로 만공스님이었다”며 “수석사가 그다음의 대표적인 국내 항일전쟁 비밀기지로 급부상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은운 전 중앙일보 대기자가 ‘만공선사의 선지와 가풍’에 대한 기초발제와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만공선사와 총독부에서의 선거발로 사건’과 이재현 금강산총대 교수가 ‘만공의 항일 독립 운동’에 대해 발제를 했다. 또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과 고영성 동국대 교수, 김광웅 충남대 교수, 홍현지 철학박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본·말사 주지 인사 (9월17일 총무원회)										
	일판스님 남양주 불전사	성관스님 영월 여래마을	정법스님 화성 보명사	보연스님 제천 지광사	덕주스님 청주 보문정사	선오스님 대전 만불선원	수완스님 연기 광덕사	지운스님 대전 용화사	현문스님 진도 구암사	대인스님 청원 불림사
	임대스님 포항 관음사	평명스님 성주 비로사	지원스님 함안 광명암	원형스님 청원 광산사	호산스님 창원 관음사	혜정스님 영주 진월사	각현스님 성주 광덕사	덕우스님 무안 목우암	동산스님 남양주 수종사	성마스님 의정부 쌍암사

• 모시는 글

원래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의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음악은 신성한 다른 소리와의 공명을 통해 내 안 가장 깊은 장소에 본래 갖추어진 영혼의 현을 진동시키며 드러납니다.

화엄음악제는 음악을 통해 잠자고 있던 진동 에너지를 깨워 안과 밖이 연결되는 하나됨의 신비를 함께 나누는 음악축제입니다.

올해의 음악회 주제인 심금(心琴)은 그 ‘하나됨’의 신비,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 화엄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깊은 침묵으로부터 마음의 현을 울려 빛으로 변화시켜줄 진정한 뮤지션들이 ‘특별한 밤’의 울림을 준비 중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구례 지리산 화엄사에서 신성한 소리 에너지와 공명하여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지혜의 사자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화엄사 주지 영관
화엄음악제 총감독 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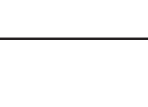
• 아티스트



에비안
Eviyan



한승석 & 정재일
bari, abando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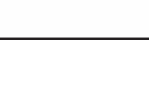
토마스 슈츠
Thomas Schultz



디마 엘사예드
Dima Eisayed



쑤
su'm



타카다 미도리
Takada Midori



원 일
Won Il

화엄음악제 2015

HWAEO M SPIRITUAL MUSIC RITUAL

심금心琴
HEARTSTRINGS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
10월 10일 오후 6시

061-782-7600(총무소)
www.hwaeommusic.com
www.facebook.com/hwaeommusic